

四川 安岳 臥佛院 59호굴 <佛說報父母恩重經>의 校勘 研究

Textual Study on *Bulsolbobumoeunjunggyeong*
Carved in Wofoyuan Anyue, Sichuan

송 일 기 (Song, Il-Gie)*

◁ 목 차 ▷

- | | |
|----------------------|--------------------|
| 1. 緒 言 | 3.2 臥佛院 59號窟內本 |
| 2. 四川 安岳 臥佛院의 造成 | 4. <恩重經> 經文의 校勘 復原 |
| 2.1 臥佛院의 造成概要 | 4.1 乙種系統의 定本 |
| 2.2 臥佛院의 唐代石經 | 4.2 復原文과 校勘 |
| 3. 臥佛院 59號窟 <恩重經> 石經 | 5. 結 言 |
| 3.1 臥佛院 59號窟外本 | <참고문헌> |

< 초 록 >

이 연구는 사천 안악 와불원의 59호굴 내부와 외부에 새겨져 있는 <佛說報父母恩重經> 2점의 원문을 다시 復原하고 定本과의 교감을 시도한 것이다. 와불원의 석경본은 735년에 바위에 새겨진 <은중경>의 異本으로 을중 계통의 가장 초기자료로 알려져 있다. 이 자료는 이후 동아시아에 널리 유포되어 현존하는 敦煌寫本 63부 중에서 34부가 발견되었으며, 우리나라에도 전파되어 고려본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안악 석경본을 대상으로 을중계통의 정본과 교감한 결과 대략 42곳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고려본과의 대교를 통해 문헌의 전승 과정을 고찰하는데 일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要語: 불설보부모은중경, 은중경, 안악, 와불원, 59호굴, 당대석경, 호문화, 신정혜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접수일: 2013년 8월 22일 최초심사일: 2013년 9월 11일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28일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not only restore the original text of two pieces of *Bulsolbobumoeunjunggyeong*(佛說報父母恩重經) which is engraved on rock of 59th cave located at Wofoyuan(臥佛院), Anyue(安岳), Sichuan(四川), China but also make a textual study comparison with original version. Carved on the rock in Wofoyuan is a different edition of <Eunjunggyeong>(恩重經) carved in 735, which is well known as early version of YiZhong(乙種) system. This version was spread to East Asia widely, and still remains 34 copy of total 63 scrolls found in Dunhuang(敦煌). It exerts on strong influence on formation of Goryeo(高麗) edition as well. Comparing the texts of Anyue version with cannon version of Yizhong system, it is revealed that about 42 parts of text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it will be helpful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transition of literature when comparing with Goryeo edition.

Key words: *Bulsolbobumoeunjunggyeong*(佛說報父母恩重經),
Eunjunggyeong(恩重經), Anyue(安岳), Wofoyuan(臥佛院), 59th
cave, Engraved on the stone in Tang Dynasty, Hu Wen He(胡文和),
Keiyo Arai(新井慧譽)

1. 緒 言

본래 은중경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판본과는 달리 敦煌 寫本과 石刻本에는 여러 異本이 존재하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이를 이른바 ‘丁蘭本’·‘刪削本’·‘講經本’·‘增益本’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또한 이를 단순히 甲種本·乙種本·丙種本·丁種本으로 구분하기도 한다.¹⁾ 그렇다면 이들 異本은 언제부터 유통되고 있었을까? 분류의 순서로 보아 정난본이 가장 먼저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나라의 효자인 丁蘭 등의 孝行譚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성립된 문헌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사실은 당나라 지승이 730년에 편찬한 『開元釋教錄』에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²⁾ 그러나 불경에 중국의 효자고사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서 찬술된 僞經으로 판단하여 대장경에도 편입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후에 효행담을 삭제하여 眞經으로 위장하기 위해 내용의 일부가 변조된 새로운 異本이 등장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刪削本(혹은 古本)에 해당한다.

그런데 중국의 불경목록 중에 <은중경>이 수록된 최초의 經錄이 695년에 明佺이 편찬한 『大周刊定衆經目錄』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목록 권15의 『僞經目錄』조에 ‘佛說父母恩重經 一卷’으로 간략하게 기입되어 있다. 이상의 목록에 기술된 사실로 보아 <은중경>은 늦어도 695년 이전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무렵 민간에 유포된 문헌이 정난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정난본에서 효행담을 刪削한 이본이 바로 연구대상 자료인 안악 59호굴에 새겨진 석경본으로 산삭본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안악 석경본은 <은중경>의 문헌 성립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더욱이 이 이본은 이후 사본으로 가장 널리 유포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악 와불원 석경본은 이 석경에 ‘開元

1) 宋日基, “敦煌寫本 <父母恩重經>의 校勘學的 研究,” 『書誌學研究』, 第35輯(2006. 12), 147-154.

2) 智昇, 『開元釋教錄』, 卷18, 僞妄亂眞錄. 父母恩重經 一卷: 經引丁蘭董黯郭巨等故知人造三紙.

23(735)'년에 조성한 공양자의 造成記가 새겨져 있어 더욱 그 가치가 중시되고 있으나, 석굴 내외의 바위에 새겨진 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 많은 곳이 剝落되거나 훼손으로 문자가 逸失된 부분이 적지 않은 상태이다.

이처럼 안악 석경본은 당대 초기의 이른 시기에 조성되었으나, 이 자료가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한지는 80년대 후반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³⁾ 이 자료는 胡文和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는데, 이때 <은중경>의 전문이 탁본에 의거 판독되어 제시되었으며, 이후 馬世長과 孫修身 등이 재차 판독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석경의 판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일실된 부분의 내용은 복원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 후 비로소 新井慧譽가 석경본 2점에 대한 복원 작업이 시도되었으나,⁴⁾ 단순히 특정 古本에 근거하여 일실된 부분을 복원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여 다른 을중계통의 사본류와는 여전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판독된 자료를 토대로 석경본의 일실된 원문을 다시 복원하고, 한편으로 복원된 경문을 바탕으로 을중계통 사본류의 定本과 校勘을 통해 그 상이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2. 四川 安岳 臥佛院의 造成

2.1 臥佛院의 造成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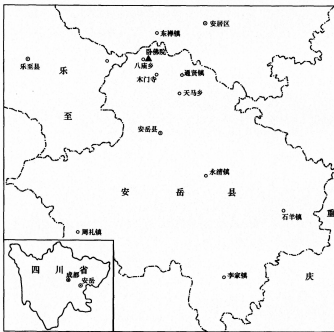
와불원은 釋迦涅槃像이 누어있는 형상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四川省 安岳縣 서북지역 八廟鄉에 위치하고 있다. 안악의 자연 환경은 주위가 바위산 구릉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예로부터 ‘安居于山岳之上’으로 불리던 곳이다.⁵⁾ 안악현은

3) 胡文和, “安岳臥佛溝唐代石經,” 『四川文物』 1986年 第2期(1986),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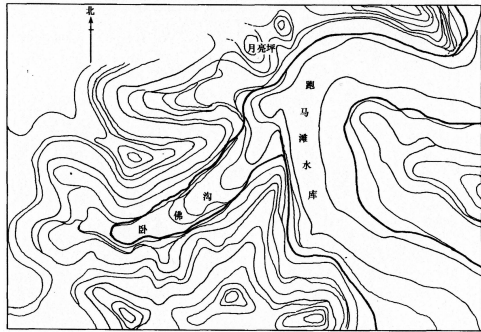
4) 新井慧譽, “<父母恩重經>の報本の復元テキスト,” 『國際政經』 第6集(2000. 9), 105-111.

5) 안악현은 춘추시대 巴蜀에 속하였으며 양나라 때 이곳에 普茲郡을 설치하여 普州가 관할하였다. 수나라 때 資陽郡으로 개칭한 이후 여러 차례 지명이 바뀌었으나 청나라 雍正7년(1729)에 안악현으로 復置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사천성의 省都인 成都市의 동남부에 근접한 內江市에 속하며, 북서쪽으로 遂寧市와 인접하고 동남쪽으로는 重慶市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그림 1> 참조). 또한 안악의 동남부에 석굴사원으로 유명한 大足이 위치하고 있다. 臥佛院은 현재의 縣 정부인 安岳縣城으로부터 40km 거리에 있는 通賢鎮 八廟鄉 臥佛村에 소재하는 석굴사원을 통칭하는 명칭이다. 바로 옆을 八廟鄉의 남방의 산중에서 발원하는 跑馬灘河가 흐르고 있으며 와불원 근처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 통현진과 遂寧市의 경계선상을 흘러 내강시 樂至縣과 교차하여 琼江河에 합류하고 있다.⁶⁾



<그림 1> 안악 와불원 위치도



<그림 2> 안악 와불원의 지형도

이곳의 地形은 기다란 계곡형태로 이른바 ‘臥佛溝’로 속칭되고 있으며, 전체의 지형은 나팔모양의 형태로 V자형과 비슷하다. 계곡의 길이는 대략 1km이며, 양쪽의 산 높이는 50m정도로 석굴은 산간의 바위에 開鑿되어 있다(<그림 2> 참조). 석굴의 길이는 약 850미터에 이르고, 現存窟龕의 수는 139곳이지만 그 중 7窟은 遂寧市에 속해 있다. 彫像은 1613軀이고 造像은 唐代부터 五代 사이에 조성되었다.⁷⁾ 현존하는 造像題記 가운데 제50호龕에 있는 開元 11년(723)의 연대가 가장

6) 그림 자료(<그림 1>, <그림 2>)는 다음의 보고서에서 전제하였다(成都文物考古研究所, “安岳臥佛院調查簡報,” 『成都考古發見』 (2006), 352-354).

7) 조사자에 따라 龕室과 彫像의 수량이 다르게 발표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나, 여기에서는

오래되었으며, 五代 後蜀의 廣政 24년(961)까지 조성되었다.

와불원의 조각상 중에 가장 유명한 명품 조상은 제3호 涅槃變窟의 佛涅槃像이다. 석굴의 높이는 10m, 길이는 31m, 폭은 2m에 이르고 있으며, 열반상의 신장은 23미터로 머리가 동쪽, 다리는 서쪽, 얼굴은 남쪽을 향하고 등은 북쪽으로 향해 있다. 다리는 포개있고 오른손은 위에 왼손은 아래로 橫臥하고 있다. 열반상은 頭北面西로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은 산기슭의 지형적 제약으로 약간 변형되어 있다. 와불원이란 명칭은 바로 이 涅槃像에서 유래되었다. 와불원 일대는 1985년 1월 13일 중국국무원에서 第三批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에 지정 공포되었다. 와불원에 불경이 새겨져 있는 석경 석굴은 모두 15개굴이 소재하고 있다.

2.2 臥佛院的 唐代石經

와불원 일대의 석굴에는 모두 15개굴에 불경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주로 당나라 玄宗 재위기간인 開元과 天寶연간에 조성되었다. 15굴은 北岩 1호와 2호굴 2곳에 <法華經> 전 내용이 刻字되어 있으며, 南岩 29호, 33호, 46호, 51호, 59호, 66호, 71호, 73호, 76호, 83호, 85호 등 11곳에 <涅槃經> 등의 불경, 그리고 나머지 2곳은 月亮坪區의 109호와 110호에 <報恩經>이 새겨져 있다.⁸⁾ 이 중 46호굴에는 당나라 낙양에 있는 敬愛寺에 수장되어 있는 一切經論의 <衆經目錄>이 새겨져 있어 안악 와불원 석굴에 새겨져 있는 불경과 어떠한 관련성을 암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안악 와불원 일대 15개굴에 새겨진 불경의 세부 현황은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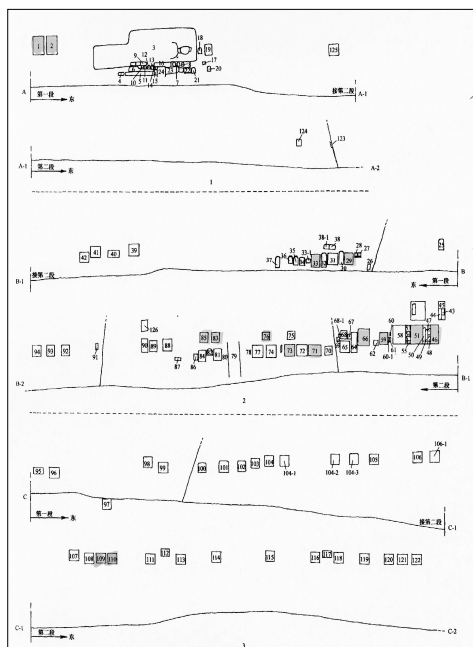
가장 최근의 논문인 新井慧譽의 集計에 따른다.

8) 成都文物考古研究所, “安岳臥佛院調查簡報,” 『成都考古發見』 (2006), 403-408.

<丑 1> 唐代 刻經 現況

순위	石窟番號	經名	譯者	備考
01	001호	妙法蓮華經 卷1-3	鳩摩羅什 譯	
02	002호	妙法蓮華經 卷4-7	鳩摩羅什 譯	
03	029호	佛說佛名經 卷1-4 般若波羅蜜多心經	菩提流支 譯 玄奘 譯	
04	033호	佛說灌頂拔除過罪生死得度經 卷12 佛說灌頂隨愿往生十方淨土經 卷11 六門陀羅尼經 佛垂般涅槃略說教誡經 賢愚經 卷4 金剛般若波羅密經	帛尸梨蜜多羅 譯 帛尸梨蜜多羅 譯 玄奘 譯 鳩摩羅什 譯 慧覺 等譯 鳩摩羅什 譯	
05	046호	大唐東京大敬愛寺一切經論自序 衆經目錄 卷1-2 大般涅槃經 卷22 佛性海藏經 卷1 金剛般若波羅密經 佛頂尊勝陀羅尼經 佛說修多羅般若波羅密經 佛說阿彌陀經 卷1 佛頂尊勝陀羅尼經	靜素 撰 靜素 撰 曇無讖 譯 失名 鳩摩羅什 譯 佛陀波利 譯 失名 鳩摩羅什 譯 佛陀波利 譯	*開元21(733)年
06	051호	大般涅槃經 卷14	曇無讖 譯	
07	059호	大般涅槃經 卷1-4 大乘大集地藏十輪經 卷3 佛說禪法略出 禪經 卷3 佛說禪秘要法經 卷中 佛說報父母恩重經 佛說報父母恩重經	曇無讖 譯 玄奘 譯 - - 鳩摩羅什 等譯 - -	*開元23(735)年 *開元23(735)年
08	066호	大般涅槃經 卷5-11	曇無讖 譯	普州 僧叡 造
09	071호	金剛般若波羅密經 般若波羅蜜多心經	鳩摩羅什 譯 玄奘 譯	楊思慎 敬造
10	073호	合部金光明經 卷1-3	眞諦 等譯	*開元15(727)年
11	076호	合部金光明經 卷3	眞諦 等譯	*開元21(733)年
12	083호	大般涅槃經 卷12	曇無讖 譯	
13	085호	維摩詰所說經 卷上-中	鳩摩羅什 譯	
14	109호	大方便佛報恩經 卷1-4	失名	
15	110호	大方便佛報恩經 卷4	失名	

<표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중 <恩重經>은 59호굴 이외에 2점이 刻經되어 있다. 와불원 석굴 위치도를 보면 59호굴은 와불원 南岩 좌측 66호와 우측 58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석실에는 <은중경> 외에 4종 12점의 불경이 새겨져 있다.



<그림 3> 와불원 석굴 위치도

제59호굴은 높이가 3.6미터, 길이 2.2미터, 폭은 2.85미터이다. 59호굴 정면과 좌우 벽면에는 천장으로부터 아래까지 마애벽면에 12점의 경전이 새겨져 있다. 석굴 내 석경의 刻經 시기는 공양자의 造成 기록을 통해 당대 開元연간(727-735년)에 새겨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은중경> 2점 중 1점은 59호굴 외벽 좌측벽면에, 다른 1점은 석실 내 우측벽면에 각각 새겨져 있는데,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를 잠정적으로 ‘窟外本’과 ‘窟內本’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3. 臥佛院 59號窟 <恩重經> 石經

3.1 臥佛院 59號窟外本

와불원의 59호굴 석실 입구 좌측 벽면에 <恩重經> 窟外本이 새겨져 있다. 이 窟外本에 관한 정보는 李良 등이 처음으로 소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경문이 새겨진 벽면의 높이는 115cm, 폭은 32cm, 넓이는 0.37㎡에 이르고 있으며, 刻字面은 모두 16行으로 한 행에 55자씩 모두 880자가 새겨진 것으로 집계하였다. 각자면 주위에는 飛天像이 浮彫되어 있다.

그런데 經題를 단순히 ‘佛說報父母恩重經’으로 소개하고 있어 석실 내 우측면에 새겨져 있는 ‘佛說報父母恩重經’과는 ‘報’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혼란을 주었다.⁹⁾ 그러나 굴외본 경문의 탁본이나 전문이 학계에 소개된 바 없어 어떠한 계통의 판본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근래 新井慧譽에 의해 처음으로 전문을 복원하여 소개함으로써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¹⁰⁾ 다음의 경문은 신정혜에 의해 복원된 전문이다.

<新井慧譽의 復原文>

- 01) 佛說報父母恩重經 如是我聞 一時佛在 王舍城耆闍崛山中 與大菩薩摩訶薩 亦與比丘比丘尼 優婆塞優婆夷 一切諸天人民 及天龍鬼
- 02) 神 皆來集會 一心聽佛說法 瞻仰尊顏 目不暫捨 佛言 人生在世 父母爲親 非父不生 非母不養 是以寄託母胎 懷身十月 歲滿月充 母子俱
- 03) 顯 生墮草上 父母養育 臥則蘭車 父母懷抱 含笑末語 和和弄聲 飢時須食

9) 李良, 鄭之金, “安岳臥佛院窟群總目,” 『四川文物』 (1997. 4), 42.

10) 新井慧譽, “<父母恩重經>의 報本の 復元テキスト,” 『國際政經』 第6集(2000. 9), 108-111.

非母不哺 渴時湏飲 非母不乳 母中飢時 吞苦吐甘 推乾就濕 非

04) 母不養 非母不親 慈母養兒 去離蘭車 十指甲中 食子不淨 子飲母乳 八斛四升 計論母恩 昊天罔極 嗚呼慈母 云何可報 阿難白佛言 世尊

05) 父母之恩 云何可報 唯願說之 佛告阿難 汝爲諦聽 善思念之 吾當爲汝 分別解說 父母之恩 昊天罔極 若有慈孝之子 能爲父母 七月十四

06) 日 能造盂蘭盆 獻佛及僧 得果无量 能報父母恩 若有人 書寫此經 受持讀誦 當知此人 能報父母恩 父母云何可報 但父母至於行來東西

07) 隣里 井竈碓磨 時不還家 母卽心驚 兩乳汁出 卽知我兒憶我 卽來還家 其兒遙見 母來 在蘭車 搖頭弄腦 或復曳腹隨行 嗚呼向母 母爲

08) 其子 曲身下就 長舒兩手 拂拭塵土 鳴和其口 開懷出乳 以乳乳之 母見兒歡 見母喜 情恩悲 親愛自重 莫復過是 二歲三歲 弄意始行

09) 於其食時 非母不知 父母行來 值他座席 或得餅肉 不暇輟味 懷協而歸 歸向與子 十來九得 恒常歡喜 一過不得 嬌聲伴哭 憊子不孝 必有

10) 五摘 孝子不嬌 必有慈順 遂至長大 朋友相隨 梳頭摩髮 欲得好衣 覆蓋身體 弊衣破故 父母自着 親好綿帛 先與其子 至於行來 官私急疾

11) 傾心南北 遂子東西 子亦長大 爲子索妻 得他子女 父母轉疏 私房室內 共相娛樂 父母年高 氣力衰老 終朝至暮 不來借問 或復父孤母寡

12) 獨守空房 猶如客人 寄止他舍 常无恩愛 復无襦被 寒苦辛 厄難遭之甚 年老色

衰 多饒蟻風 夙夜不臥 長呼歎息 何罪宿愆 生此不孝

- 13) 之子 或時喚呼 瞋目驚怒 盡不從順 罵詈瞋恚 何不早死 强在地上 父母聞之

悲哭懊惱 流淚雙下 啼哭目腫 汝初小時 非吾不長 但吾生汝

- 14) 不如本无 佛告阿難 若有善男子善女子 能爲父母 受持讀誦 書寫父母恩重 大

乘摩訶般若波羅密經 一句一偈 一逕耳目者 所有五逆重

- 15) 罪 皆得消滅解脫 阿難從座而起 偏袒右肩 長跪合掌 前白佛言 世尊 此經當

何名之 云何奉持 佛告阿難 此經名父母恩重經 若有一切衆生 能爲父母 作

福造經燒香 請佛禮拜 供養三寶 或飲食衆僧 當知是人 能報父母

- 16) 其恩 帝釋梵王 諸天人民 一切衆生 聞經歡喜 發菩薩心 啼哭動地 淚下如雨

五體投地 信受頂禮佛足 歡喜奉行 報父母恩重經

이를 통해 窟外本の 머리에 보이는 經題가 窟內本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古本’ 계통의 報本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하여 신정은 2점이 동일한 계통의 판본이라는 사실을 착안하여 이 2점을 상호 대비하고 古本(乙種)으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진문을 복원하였다. 다만 어느 곳에도 마애에 새긴 시기는 나타나 있지 않아 刻成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실정이나, 59호굴의 掘鑿 시기인 개원연간으로 보인다. 그런데 처음 이 자료를 소개한 李艮은 刻字面이 모두 16행으로 1행에 55자로 밝히고 있으나, 新井慧譽의 복원본에는 1행에 54자로 되어 있어 1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복원문 제15행은 85자에 이르고 있어 무려 31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실정이다.

3.2 臥佛院 59號窟內本

와불원 59호 석굴 내 전면과 좌우 3면에는 모두 12점의 불경이 刻字되어 있는데, 이 중 우측 벽면의 맨 끝부분 제105행으로부터 제113행 사이의 9행에 걸쳐 <佛說報父母恩重經> 1점의 경문이 새겨져 있다. 59굴의 경문이 새겨진 벽면의 높이는 207cm, 폭은 248cm, 넓이는 5.13m²에 이르고 있으며, 刻字面은 모두 114행으로 한 행에 106자씩 모두 12,084자가 새겨진 것으로 집계하였다.¹¹⁾ 각자면 주위의 테두리에 飛天像이 浮彫되어 있고 그 아래 경문이 새겨져 있다.



<그림 4> 와불원 59호 우벽 상단도



<그림 5> 와불원 59호 우벽 상단도

그런데 59호굴 石刻經典 중 <佛說禪秘要經>의 尾題와 <佛說報父母恩重經>의 首題 사이에 “開元廿三年二月十五日 長江縣李沙敬造供養”이란 造成記가 보이고 있고, 또한 <佛說報父母恩重經>의 말미에 “年六月廿六日 清信女滿[佛]”이 새겨져 있어 석경의 刻成 시기를 알 수 있다. 즉 ‘開元廿三年’은 서기 735년으로 당나라 제8대 황제 현종(712~756)의 재위 중반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長江縣은 四川省 蓬溪縣의 460리에 소재하는 지방으로 당대에는 劍南道遂州에 속하고, 송대에는 潼川府路遂寧府에 속했다. 長江縣에 살았던 李沙라는 사람의 施主로 735년에 <佛說禪秘要經>을 새겨 供養한 사실을 알 수 있다. 刻經에 시주한 李沙는 당시 이 지역의 재산이 많고 信心이 두터운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1) 李良, 鄭之金, “安岳臥佛院窟群總目,” 『四川文物』 (1997. 4), 42.

그리고 <恩重經>의 말미에 보이는 조성기에는 연대는 훼손되고 ‘月日’만 남아 있어 정확한 작성 시기를 알 수 없으나, 학계에서는 대체로 首題 위에 보이는 ‘開元23年’으로 보아 735년에 59호굴의 다른 불경과 동시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刻經에 시주한 사람은 ‘滿□’로 1자가 희미한 상태인데, 좌변이 ‘イ’와 우변 ‘月’으로 판독되어 佛자의 이체자로 보고 있다. 이로 보아 공양자 滿佛은 人名이 아니라 法名으로 판단되며, 당시 이 지역의 재산이 많고 지체가 높은 유력한 집안의 여성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胡文和에 의해 拓本과 判讀文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¹²⁾ 이후 孫修身이 拓本자료를 근거로 재차 판독문을 제시하여 경문의 일부 내용을 알 수 있었으며,¹³⁾ 근래 新井에 의해 복원문이 발표되어 비로소 경문의 全文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래에 胡文和의 판독문과 이를 바탕으로 복원한 新井慧譽의 복원문 전문을 차례로 수록하여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胡文和의 判讀文>

01) 佛說報父母恩重經

02) 暫捨佛言人生在世父母爲親非父不生非母不養是以寄託母胎懷身十月歲滿
月充母子俱顯生墮草上父母養育臥則蘭車

03) 四升計論母恩昊天罔極嗚呼慈母云何可報阿難白佛言世尊父母之恩云何可
報唯願說之佛告阿難汝爲諦聽善思念之

04) 報父母恩父母云何可報但父母至於行來東西隣里井竈確磨時不還家母卽心
驚兩乳汁出卽知我兒憶我卽來還家

12) 胡文和, “安岳臥佛溝唐代石經,” 『四川文物』 1986年 第2期(1986), 23.

13) 孫修身, “佛說報父母恩重經板本研究,” 『段文傑敦煌研究五十年紀念文集』 (北京: 世界圖書, 1996), 246-249.

- 05) 復過是二歲三歲弄意始行於其食時非母不知父母行來值他座席或得餅肉不敢輟味懷協而歸歸向其與子十來九得恒
- 06) 急疾傾心南北遂子東西橫上其頭爲子索妻得他子女父母轉疏私房室內共相娛樂父母年高氣力衰老終朝至暮
- 07) 瞋目驚怒盡不從順罵詈瞋恚不如早死强在地上父母聞之悲哭懊惱流淚雙下啼哭目腫汝初小時非吾不長
- 08) 偏但右肩常(長)跪合掌前白佛言世尊此經當(云)何名之云何奉持佛告

다음으로 新井慧譽는 와불원 59호굴 석경본 <恩重經> 2점의 원문을 복원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굴외본과 굴내본 2점이 동일한 저본을 새겼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상호 보완하는 방법으로 복원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양쪽이 모두 일실된 부분은 주로 돈황 사본 S2084(英藏)을 참고하였다.¹⁴⁾

<新井慧譽의 復元文>

- 01) 佛說報父母恩重經 如是我聞 一時佛在 王舍城耆闍崛山中 與大菩薩摩訶薩 亦與比丘比丘尼 優婆塞優婆夷 一切諸天人民 及天龍鬼神 皆來集會 一心聽佛說法 瞻仰尊顏
- 02) 目不暫捨 佛言 人生在世 父母爲親 非父不生 非母不養 是以寄託母胎 懷身十月 歲滿月充 母子俱顯 生墮草上 父母養育 臥則蘭車 父母懷抱 含笑末語 和和弄聲 飢時須食 非母不哺 渴時須飲 非母不乳 母中飢時 吞苦吐甘 推乾就濕 非

14) 新井慧譽, “<父母恩重經>의 報本의 復元 텍스트,” 『國際政經』 第6集(2000. 9), 108-111.

母不養 非母不親 慈母養兒 去離蘭車 十指甲中 食子不淨 子飲母乳 八

- 03) 解四升 計論母恩 昊天罔極 嗚呼慈母 云何可報 阿難白佛言 世尊父母之恩 云何可報 唯願說之 佛告阿難 汝好諦聽 善思念之 吾當爲汝 分別解說 父母之恩 昊天罔極 若有慈孝之子 能爲父母 七月十四日 能造盂蘭盆 獻佛及僧 得果无量 能報父母恩 若有人 書寫此經 受持讀誦 當知此
- 04) 人報父母恩 父母云何可報 但父母至於行來 東西隣里 井竈碓磨 時不還家 母卽心驚 兩乳汁出 卽知我兒憶我 卽來還家 其兒遙見 母來 或在蘭車 搖頭弄腦 或復曳腹隨行 嗚呼向母 母爲其子 曲身下就 長舒兩手 拂拭塵土 嗚和其口 開懷出乳 以乳乳(與)之 母見兒歡 兒見母喜 二情恩悲 親愛
- 05) 自重莫復過是 二歲三歲 弄意始行 於其食時 非母不知 父母行來 值他座席 或得餅肉 不暇輟味 懷協而歸 歸向與子 十來九得 恒常歡喜 一過不得 嬌聲佯哭 嬌子不孝 必有五摘 孝子不悞 必有慈順 遂至長大 朋友相隨 梳頭摩髮 欲得好衣 覆蓋身體 弊衣破故 父母自着 新(親)好綿帛 先與其子 至於行來
- 06) 官私急疾 傾心南北 遂子東西 子亦長大 爲子索妻 得他子女 父母轉疏 私房室內 共相娛樂 父母年高 氣力衰老 終朝至暮 不來借問 或復父孤母寡 獨守空房 猶如客人 寄止他舍 常无恩愛 復无襦被 寒苦辛 厄難遭之甚 年老色衰 多饒蟣風 夙夜不臥 長呼歎息 何罪宿愆(僭) 生此不孝之子
- 07) 或時喚呼 瞋目驚怒 盡不從順 罵詈瞋恚 何不(不如)早死 强在地上 父母聞之 悲哭懊惱 流淚雙下 啼哭目腫 汝初小時 非吾不長 但吾生汝 不如本无 佛告阿難 若有善男子善女子 能爲父母 受持讀誦 書寫父母恩重 大乘摩訶般若波羅密經 一句一偈 一逕耳目者 所有五逆重罪 皆得消滅解脫 阿難

- 08) 從座而起 偏袒右肩 常(長)跪合掌 前白佛言 世尊 此經當何名之 云何奉持 佛告阿難 此經名父母恩重經 若有一切衆生 能爲父母 作福造經燒香 請佛禮拜 供養三寶 或飲食衆僧 當知是人 能報父母其恩 帝釋梵王 諸天人民 一切衆生 聞經歡喜 發菩薩心 啼哭動地 淚下如雨 五體投地 信受頂禮佛足 歡喜奉行 報父母恩重經

이상에서 胡文和와 新井慧譽 2인의 판독문을 전제하였는데, 이 판독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차이점은 각행이 시작되는 부분의 첫 글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한 행에 몇 글자가 수록되어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향후 경문의 전문을 복원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판독문을 근거로 각행의 첫 글자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판독문 각행의 시작글자

구분	제1행	제2행	제3행	제4행	제5행	제6행	제7행	제8행
胡 文 和	佛說	暫捨	四升	報父母	復過	急疾	瞋目驚怒	偏袒右肩
新井慧譽	佛說	且不暫捨	斛四升	人報父母	自重莫復過	官私急疾	或時喚呼 瞋目驚怒	從座而起 偏袒右肩

이처럼 2인의 판독문 중에 각행의 시작글자가 차이를 보이는 곳은 적게는 1자에서 많게는 4자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2인의 연구 대상 자료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胡文和는 주로 그의 논문에 게재된 탁본을 근거로 판독하였으며, 이에 비해 新井慧譽는 탁본을 기본으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판독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탁본을 조사해 보면 호문화의 판독문과는 일치하지만 신정혜예의 복원문과는 다르다.

그리고 2인의 판독문에는 중국 고대의 효자고사에 등장하는 丁蘭과 郭巨 등의 내용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十恩이나 地獄에 관한 부분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을종계통의 刪削本(古本)에 분류되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석경의 일실된 경문을 復原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4. <恩重經> 經文의 校勘 復原

4.1 乙種系統의 定本

중국 돈황의 장경동에서 발견된 돈황 사본에는 60여점에 이르는 <恩重經>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 사본 검토해 본 결과 <은중경>은 대략 3계통으로 분류되고 있다. 제1계통은 경문에 중국고대의 丁蘭 등 4인의 효자고사가 반영되어 있어 가장 초기에 성립된 문헌으로 보이고 있어 이를 연구자에 따라 ‘甲種’으로 구분하거나 ‘丁蘭本’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제2계통은 제1계통의 정난본에서 효자고사의 내용이 삭제된 문헌을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효자고사가 삭제되었다고 이를 ‘刪削本’으로 부르고 있고 혹은 성립과정에서 두 번째 단계라는 의미에서 ‘乙種’이라 하나, 대부분의 연구자는 ‘古本’으로 통칭하고 있다. 제3계통은 부모에 대한 十恩에 관한 내용과 부모에 대한 은혜에 報答하지 못하게 되면 가해지는 지옥에 관한 내용이 많이 보완되어 있어 이를 ‘增益本’ 혹은 ‘報本’으로 구분하며 성립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로 보아 ‘丁種’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필자는 돈황사본을 대상으로 다양한 異本을 분류하고 이 중 가장 最善本을 염선하여 3계통의 정본화 작업을 시도한 바 있다.¹⁵⁾ 그리하여 필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을중계통[古本]의 정본을 아래에 제시하여 新井慧響의 복원문과의 교감을 통해 재차 복원을 시도하고자 한다.

<표 3> 乙種系統의 <恩重經> 定本

如是我聞 一時佛在 王舍城耆闍崛山中 與大菩薩摩訶薩 及聲聞眷屬俱 亦與比丘比丘尼 優婆塞優婆夷 一切諸天人民 及天龍鬼神 皆來集會 一心聽佛說法 瞻仰尊顏 因不暫捨
佛言 人生在世 父母爲親 非父不生 非母不育 是以 寄託母胎 懷娠十月 歲滿月充 母子俱顯 生墮草上 父母養育 臥則蘭車 父母懷抱 和和弄聲 含笑末語 飢時須食 非母不哺 渴時須飲

15) 송일기, “敦煌寫本 <父母恩重經>의 校勘學的 研究,” 『書誌學研究』 第35輯(2006. 12), 159-163.

非母不乳 母中飢時 吞苦吐甘 推乾就濕 非義不親 非母不養 慈母養兒 去離蘭車 十指甲中 食子不淨 應各有八斛四斗 計論母恩 昊天罔極 嗚呼 慈母云何 可報其恩 阿難白佛言 世尊云何 可報其恩 唯願說之

佛告阿難 汝諦聽 善思念之 吾當爲汝 分別解說 父母之恩 昊天罔極 云何可報 若有孝順 慈孝之子 能爲父母 作福造經 或以七月十五日 能造佛槃盂蘭盆 獻佛及僧 得果无量 能報父母之恩 若復有人 書寫此經 流布世人 受持讀誦 當知此人 報父母恩 父母云何可報 但父母至於行來 東西隣里 井竈確磨 不時還家 我兒家中 啼哭憶我 卽來還家 其兒遙見我來 或在蘭車 搖頭弄腦 或復曳腹隨行 嗚呼向母 母爲其子 曲身下就 長舒兩手 拂拭塵土 鳴和其口 開懷出乳 以乳與之 母見兒歡 兒見母喜 二情恩悲 親愛慈重 莫復過是 二歲三歲 弄意始行 於其食時 非母不知 父母行來 值他座席 或得餅肉 不暇輟味 懷挾將歸 歸向其子 十來九得 恒常歡喜 一過不得 憐啼伴哭 憐子不孝 又必五摘 孝子不憐 必有慈順 遂至長大 朋友相隨 梳頭摩髮 欲得好衣 覆蓋身體 弊衣破故 父母自着 新好綿帛 先與其子 至於行來 官私急疾 傾心南北 遂子東西 橫上其頭 既索妻婦 得他子女 父母轉疏 私房屋室 共相語樂 父母年高 氣力衰老 終朝至暮 不來借問 惑復父孤守空房 猶如客人 寄止他舍 常无恩愛 復无濡被 寒苦辛厄 難遭之甚 年老色衰 多饒蟻風 夙夜不臥 長呼歎息 何罪宿愆 此不孝之子 或時喚呼 瞋目驚怒 婦兒罵詈 低頭含笑 妻復不孝 子復五摘 夫妻和合 同作五逆 彼時喚呼 急疾取使 十喚九違 盡不從順 罵詈瞋恚 不如早死 強在地上 父母聞之 悲哭懊惱 流淚雙下 啼哭目腫 汝初小時 非吾不長 但吾生汝 不如本无

佛告阿難 若善男子善女人 能爲父母 受持讀誦 書寫父母恩重大乘摩訶般若波羅密經 一句一偈 一彈耳目者 所有五逆重罪 悉得消滅 永盡无餘 常得見佛 聞法速得 解脫

阿難 從座而起 偏袒右肩 長跪合掌 前白佛言 世尊此經 云何名之 云何奉持 佛告阿難 此經名父母恩重經 若有一切衆生 能爲父母 作福造經燒香 請佛禮拜 供養三寶 或飲食衆僧 當知是人 能報父母其恩

帝釋梵王 諸天人民 一切衆生 聞經歡喜 發菩薩心 啼哭動地 淚下如雨 五體投地 信受頂禮 佛足 歡喜奉行

이처럼 중국에서 목판인쇄기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인 송대 초기까지는 사본으로 널리 유통되어 지역에 따라 여러 이본이 등장하였으며, 이후 서적이 필사본에서 목판본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점차 <은중경> 경문의 텍스트도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초기자료는 서하본에서 보이고 있으며, 이후 고정되어 정본화된 판본은 주로 고려본에서 보이고 있다.

4.2 復原文과의 校勘

이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新井慧譽의 복원문과 필자가 제시한 을종계통 정본과의 교감을 통해 안악 59호굴에 새겨져 있는 <恩重經>의 일실된 경문을 복원하고자 한다. 경문 교감은 3장에서 제시한 窟外本과 窟內本 2점의 은증경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작업 결과는 8행본인 窟內本の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을종계통의 정본과 교감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新井慧譽 復原文의 校勘

行數	復原經文	校勘內容
01	佛說報父母恩重經 如是我聞一時佛在王舍城耆闍崛山中與大菩薩摩訶薩①亦與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一切諸天人民及天龍鬼神皆來集會一心聽佛說法瞻仰尊顏	①及聲聞眷屬俱
02	①且暫捨佛言人生在世父母爲親非父不生非母不②養是以寄託母胎懷③身十月歲滿月充母子俱顯生墮草上父母養育臥則蘭車父母懷抱④含笑末語和和弄聲飢時須食非母不哺渴時須飲非母不乳母中飢時吞苦吐甘推乾就濕⑤非母不養非母不親慈母養兒去離蘭車十指甲中食子不淨⑥子飲母乳八	①因 ②育 ③娠 ④和和弄聲含笑末語 ⑤非養不親非母不養 ⑥應各有
03	斛四升計論母恩昊天罔極嗚呼慈母云何可報①阿難白佛言世尊②父母之恩云何可報③唯願說之佛告阿難汝④好諦聽善思念之吾當爲汝分別解說父母之恩昊天罔極⑤若有⑥慈孝之子能爲父母⑦七月十⑧四日能造⑨盂蘭盆獻佛及僧得果无量能報父母⑩恩若⑪有人書寫此經⑫受持讀誦當知此	①其恩 ②刪文 ③其恩 ④爲 ⑤云何可報 ⑥孝順 ⑦作福造經或以 ⑧五 ⑨佛槃 ⑩之 ⑪復 ⑫流布世人
04	人報父母恩父母云何可報但父母至於行來東西隣里井竈確磨時不還家①母卽心驚兩乳汁出卽知我兒憶我卽來還家其兒遙見②母來③惑在蘭車搖頭弄腦或復曳腹隨行嗚呼向母母爲其子曲身下就長舒兩手拂拭塵土嗚和其口開懷出乳以乳④乳之母見兒歡兒見母喜二情恩悲親愛	①我兒家中 啼哭 ②我 ③或 ④與
05	①自重莫復過是二歲三歲②吐意始行於其食時非母不知父母行來值他座席或得餅肉不暇輟味③懷協而歸④歸向與子十來九得恒常歡喜一過不得⑤嬌聲伴哭嬌子不孝⑥必有五箇孝子不嬌必有慈順遂至長大朋友相隨梳頭摩髮欲得好衣覆蓋身體弊衣破故父母自着⑦親好綿帛先與其子至於行來	①慈 ②弄 ③懷挾來(將)歸 ④向其與子 ⑤嬌啼 ⑥又必 ⑦新

行數	復原經文	校勘內容
06	官私急疾傾心南北遂子東西①子亦長大②爲子索妻得他子女父母轉疏私房室內共相③娛樂父母年高氣力衰老終朝至暮不來借問惑復父孤母寡獨守空房猶如客人寄止他舍常无恩愛復无④襦被寒□苦辛厄難遭之甚年老色衰多饒蟻風夙夜不臥長呼歎息何罪宿⑤愆⑥生此不孝之子	①橫上其頭 ②既索妻婦 ③語(歡) ④濡 ⑤愆 ⑥刪字
07	或時喚呼瞋目驚怒①盡不從順罵詈瞋恚②何不早死強在地上父母聞之悲哭懊惱流淚雙下啼哭目腫汝初小時非③五不長但③五生汝不如本无佛告阿難若善男子善女人能爲父母受持讀誦書寫父母恩重大乘摩訶般若波羅密經一句一偈一逕耳目者所有五逆重罪④皆得消滅⑤解脫阿難	①婦兒罵詈低頭含笑 妻復不孝子復五嫡夫妻和合同作五逆彼時喚呼急疾取使十喚九違 ②不如 ③吾 ④悉 ⑤永盡无餘常得見佛聞法速得
08	從座而起偏袒右肩①長跪合掌前白佛言世尊此經②當何名之云何奉持佛告阿難此經名父母恩重經若有一切衆生能爲父母作福造經燒香請佛禮拜供養三寶或飲食衆僧當知是人能報父母其恩帝釋梵王諸天人民一切衆生聞經歡喜發菩提心啼哭動地淚下如雨五體投地信受頂禮佛足歡喜奉行	①常 ②云

<표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新井慧譽의 복원문과 을중정본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곳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감 결과 신정의 복원문과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아래와 같다.

제1행은 經題를 포함하여 이어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恩重經>에서 경제의 의미는 경전의 성립과 더불어 異本의 변화양상을 추적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돈황 사본 중 초기자료에는 ‘佛說父母恩重經’으로 기재되었으나 59호굴의 을중경에서는 ‘佛說報父母恩重經’로 표기되어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후대 목판본으로 정형화된 고려본 이후에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佛說父母恩重經’이란 경제가 보이는 자료는 ‘丁蘭本’(甲種)일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에 ‘報’자가 들어있는 경우는 ‘刪削本’(혹은 古本, 報本, 乙種)으로 파악되며, 또한 ‘大報’ 2자가 더 들어있는 경우는 ‘增益本’으로 現行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행은 불경의 형식상 序分부분에 해당하며 六成就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요한 차이는 ‘及聲聞眷屬俱’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오히려 돈황 사본에는 대부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 비록 아래와 중복적 어구이지만 補入되어야 할 것이다.

제2행은 ‘佛言’ 이하로부터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7행 전반까지 정중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곳에서는 모두 여섯 곳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자체상 또는 의미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目자의 경우 돈황 사본에는 因자의 고행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관독상의 오류가 아닌가 한다. 그 외에 養과 育, 身과 娠은 의미상의 차이로 보인다. 그리고 ④와 ⑤의 경우 문장이 뒤바뀐 사례이며, 동시에 弄과 義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끝부분 ‘子飲母乳’ 부분이 돈황사본에는 ‘應各有’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체가 아들과 어머니로 뒤바뀌는 미묘한 부분이다. 순리상으로는 아들이 모유를 8斛4斗를 마시고 성장했으니 은혜를 중하게 여겨야한다는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나, 돈황사본 중 갑종과 을종계통 대부분이 ‘應各有’로 기술되어 있어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제3행은 정본과 교감해 보면 모두 12곳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중 ①과 ③은 其恩 2자가 보입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②父母之恩 4자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④는 好를 爲자로, ⑧은 四를 五자로 수정하여야 하며, 그밖에는 7곳은 모두 복원문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보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4행은 모두 4곳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중 ①母卽心驚兩乳汁出卽知我兒 12자는 ‘我兒家中啼哭’ 6자로 축약되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 3곳은 모두 수정되어야 한다.

제5행은 모두 7곳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③과 ④ 사이에는 歸자가 중복되어 있어 의미가 중첩되므로 교감한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 4곳도 교감자로 수정하여야 하나, ⑥의 경우는 석경본을 따라도 좋을 것이다.

제6행은 모두 6곳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①의 경우는 그 내용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변화 되었으며, ⑦은 돈황 사본에는 없는 글자이다. 그 외의 3곳은 교감자로 수정되어야 하는데, 다만 ③의 경우 정본에 ‘語’로 되어 있으나 <恩重經

變相圖>에는 ‘歡’으로 기재된 곳도 있어 주목된다.

제7행은 모두 5곳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①의 경우는 무려 36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입이 필요하며, 또한 ⑤의 경우도 12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역시 補入되어야 한다. 그 외 ②와 ③은 수정되어야 하고 ④는 같은 통용자이나 사본에는 悉자로 되어 있다.

제8행은 유통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모두 2곳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곳 모두 수정되어야 한다.

이상 신정의 복원문과 교감한 결과 42곳에서 을중계통의 정본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정본의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교감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는 안악 석경본은 당 현종 치세기간인 735년 이전에 사천지역에서 유통되었던 사본을 저본으로 석굴 내외에 새겼던 것으로 보이며,¹⁶⁾ 교감 대상인 을중계통의 사본은 이 보다 한 세기 이상 늦은 대략 9세기 후반에 유통되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부분적인 潤文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結 言

이상에서 사천 안악 와불원 59호 석굴의 내외에 2점의 <은중경>의 경문 내용을 판독하고 일실된 부분을 복원한 경문과 이를 을중계통의 정본과 교감한 연구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사실로 요약된다.

첫째, 안악 와불원 59호 석굴에 새겨진 <은중경>은 經題에 ‘報’자가 들어가 있어 丁蘭本을 산작한 古本이다.

둘째, 59호굴의 刻經 시기는 당나라 현종 재위기간인 735년으로 석각의 저본은 사천지역에 유통되었던 刪削本(古本=乙本)으로 파악되었다.

16) 그리하여 新井慧譽는 730년 『開元錄』이 편찬된 이후 735년 안악 석경본이 새겨진 사이에 丁蘭本의 효행담을 삭제하여 이른바 을중계통의 ‘刪削本’ 또는 ‘古本’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新井慧譽, “<父母恩重經>의 報本의 特徵,” 『二松學舍大學論集』 第44集(2001), 183).

셋째, 안악 석경본과 을중계통의 定本과 교감한 결과 대략 42곳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상이 분석되었다.

넷째, 이러한 교감결과는 안악 석경본이 을중계통의 가장 초기 자료임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 무렵 정난본에 들어 있는 효자고사 관련 인물에 관한 내용이 산삭되어 새로운 異本[刪削本]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이처럼 많은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을중계통의 정본이 대략 9세기 중반 이후에 작성된 사본으로 석경본과는 한 세기 이상 시차를 보이고 있어 그 사이에 부분적인 潤文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안악 와불원 59호굴 석경본은 <恩重經>의 여러 異本 가운데 丁蘭本의 효행담 100여자를 삭제하여 변조한 刪削本의 가장 초기자료로 보이고 있다. 이후 이 산삭본은 돈황 사본 중에 30여부 이상이 발견되었을 정도로 중국 전역으로 유포되었으며, 또한 十恩과 18地獄에 관한 내용이 增益된 다른 이본이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이 異本들은 신라시대 우리나라로 건너와 고려시대에는 3종의 이본을 集合한 大德本(1300年刊)의 성립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악 와불원 석경본은 고려 대덕본 형성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아 판본 형성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자료로 보인다.

<참고문헌>

道端良秀, “唐代佛教と家族倫理－父母恩重經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2호(1952), 280-281.

禿氏祐祥, “<父母恩重經>の異本に就て,” 『宗教研究』 第5卷 第4號(1928), 116-123.

馬世長, “<父母恩重經>寫本與變相,” 『1997年敦煌石窟研究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石窟考古篇』, 遼寧美術出版社, 1990, 128-133.

馬世長, “〈父母恩重經〉寫本與變相.” 『敦煌研究文集: 敦煌石窟經變篇』, 甘肅民族出版社, 2000. 397-419.

박도화, “『佛說大報父母恩重經』變相圖의 圖像형성 과정.” 『美術史學報』 23輯(2004). 111-154.

成都文物考古研究所, “安岳臥佛院調查簡報.” 『成都考古發現』(2006). 352-408.

小川貫一, “〈佛說大報父母恩重經の變文と變相〉研究.” 『印度學佛敎學研究』 第13卷 第1號(1965). 49-57.

孫修身, “『佛說報父母恩重經』板本研究.” 『段文傑敦煌研究五十年紀念文集』, 北京: 世界圖書, 1996. 239-249.

孫修身, “山東成武白浮圖村〈父母恩重經〉碑校記.” 『敦煌研究』 1997年 第2期(1997). 128-133.

孫修身, “大足寶頂與敦煌莫高窟〈佛說父母恩重經〉變相的比較研究.” 『敦煌研究』 1997年 第1期(1997). 57-68.

宋日基(外), “初編本『三綱行實孝子圖』의 編纂過程 및 板畫樣式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5輯(2003. 6). 407-446.

宋日基, “韓國本〈父母恩重經〉形成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2006. 3). 261-282.

宋日基, “敦煌寫本〈父母恩重經〉의 校勘學的 研究.” 『書誌學研究』 第35輯(2006. 12). 145-181.

新井慧譽, “敦煌本〈父母恩重經〉校異.” 『二松學舍大學論集』 第22集(1979). 77-110.

新井慧譽, “『大報父母恩重經』の先在經典: 『伊藤卷上』.” 『印度學佛敎學研究』 第42卷 第2號(1993). 256-260.

新井慧譽, “〈父母恩重經〉の丁蘭本について.” 『佛敎學』 第37號(1995). 23-43.

新井慧譽, “〈父母恩重經〉の丁蘭本 校異.” 『二松學舍大學論集』 第39集(1996). 217-231.

新井慧譽, “〈父母恩重經〉の古本 校異.” 『二松學舍大學論集』 第40集(1997).

161-184.

新井慧譽. “黒水城發見の<父母恩重經: 我TK120>について.” 『二松學舎大學論集』第42集(1999). 135-161.

新井慧譽. “<父母恩重經>の報本の復元テキスト.” 『國際政經』第6集(2000. 9). 105-111.

新井慧譽. “<父母恩重經>の報本の特徴.” 『二松學舎大學論集』第44集(2001). 175-184.

新井慧譽. “敦煌本<父母恩重經>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第50卷 第2號(2002). 152-158.

新井慧譽. “房山石經の<父母恩重經>.” 『印度學佛教學研究』第51卷 第1號(2002). 37-43.

新井慧譽. “房山石經の<父母恩重經>古本新資料について.” 『二松學舎大學東洋學研究所集刊』第34集(2004). 135-161.

龍晦. “大足佛教石刻<父母恩重經>變相跋.” 『大足石刻研究』. 成都: 四川省社會科學院出版社, 1985. 82-91.

劉長久. “安岳石窟藝術概論.” 『安岳石窟藝術』.

劉進寶. “中國敦煌學研究的特點.” 『人文科學』第84輯(2002). 139-159.

李良, 鄭之金. “安岳臥佛院窟經總目.” 『四川文物』1997年 第4期(1997). 38-46.

林元白. “唐代房山石經刻造概況.” 『現代佛教』1958年 第3期(1958). 11-23.

張湧泉. “敦煌本<佛說父母恩重經>研究.” 『文史』第49期(1994). 65-86.

鄭阿財. “敦煌寫本<父母恩重經>研究.” 『中興法商學報』第18期(1983). 311-328.

鄭阿財. “<父母恩重經> 傳佈的歷史考察.” 『新世紀敦煌學論文集』. 成都: 巴蜀書社, 2003. 27-48.

曹丹. “安岳臥佛院臥佛刻經與題記.” 『四川文物』1990年 第2期(1990). 49-53.

秦明智. “北宋<報父母恩重經>變畫.” 『文物』(1982. 12). 36-38.

落合俊典. 『七寺古逸經典研究叢書』第5冊. 東京: 大東出版社, 2000.

塚本善隆. “石經山雲居寺と石刻大藏經.” 『東方學報』第5冊(富刊).

秋月觀暎. “道教と佛教の父母恩重經: 兩經の成立をめぐる諸問題.” 『宗教研究』
187號(1996). 23-54.

胡文和. “安岳臥佛溝唐代石經.” 『四川文物』1986年 第2期(1986). 20-25.

胡文和. “大足寶頂<父母恩重經變相>研究.” 『敦煌研究』1992年 第2期(1992).
11-18.

胡文和. 『四川道教佛教石窟藝術』. 四川: 四川人民出版社, 1994.

黃炳章. “房山雲居寺石經探勘小史.” 『房山石經研究』2集, 十方(1992).